

누락된 A매치 기록...센추리클럽의 불편한 진실

조국 위해 청춘 바친 그들...반드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유산'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A매치 100경기 9명...기성용 3경기 남아 김호곤·조영중·박성화·허정무 요건 충족 차분 A매치 기록, FIFA에 17경기나 누락 92년 이전 올림픽, A매치 출전 인정 관건

울산에서 열린 한국과 세르비아의 평가전(14일)에 앞서 뜻 깊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세르비아대표팀 주장 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33)의 A매치(대표팀간 경기) 100경기 출전을 기념하는 축하 이벤트였고, 대표팀을 위해 헌신한 12년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였다.

이처럼 축구에서는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하면 영예로운 타이틀을 달아준다. 센추리 클럽(Century club) 가입이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뛰면 받을 수 있는 축구 훈장인 셈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현재 한국 출신은 9명이 등재되어 있다. 최다 출전은 136경기(10득점)의 홍명보다. 이은재(131) 이영표(127) 유상철(120) 차범근(119) 김태영(104) 이동국(104) 황선홍(102) 박지성(100) 등이 영광의 얼굴들이다.

1990년 2월4일 노르웨이와 친선전에 출전하며 A매치 타이틀을 끊은 홍명보는 2002년 11월20일 브라질과 친선전을 끝으로 현역 유니폼을 벗었다. 13년간 태극마크를 달았고,



차범근 조광래 허정무 김호곤 박성화 조영중

4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살아 있는 전설로 남았다. 현역 선수로는 이동국(전북)이 유일하게 포함된 가운데 대표팀 주장 기성용(스완지 시티)도 97경기를 기록해 3경기만 더 채우면 한국선수로는 10번째로 영광을 누린다.

그런데 해방 이후 70년간 한국축구에서 A매치 100경기를 뽐낸 선수가 고작 9명밖에 없다는 게 의아스러웠다. 박대통령컵, 메르데카컵, 킹스컵, 아시안컵 등 내가 어릴 적 봤던 그 많은 A매치 경기의 기록들이 모두 반영됐는지가 궁금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집계를 보면 궁금증은 조금 풀린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모두 13명이 A매치 100경기 이상 뛰었다.

FIFA가 인정한 9명 이외에도 김호곤(124) 조영중(112) 박성화(107) 허정무(103) 등 4명이 더 있다. 김호곤은 1971년 10월4일 올림픽

아시아예선 대만전에서 A매치에 데뷔했고, 1979년 3월4일 한일전을 통해 은퇴경기를 했다. 조영중은 1975년 3월19일 아시안컵 베트남전, 박성화는 1975년 7월29일 메르데카컵 말레이시아전, 허정무는 1974년 12월11일 킹스컵 인도네시아전을 통해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뒤 10년 이상 한국축구를 위해 헌신했다. 이들은 센추리 클럽 가입요건을 갖췄으며, 축구협회는 조만간 FIFA에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조광래도 현재 99경기인데, 빠뜨린 기록이 없는 지를 확인한 뒤 추가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차범근은 A매치 기록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경우다. 고려대 1학년이던 1972년 5월7일 아시안컵 이라크전을 통해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뒤 3일 뒤인 5월10일 크메르전에서 A매치

첫 골을 넣었다. 1979년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그는 멕시코월드컵에 출전해 1986년 6월11일 이탈리아전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축구협회가 집계한 차범근의 A매치 기록은 FIFA보다 17경기가 많은 136경기다. 여기에는 올림픽 예선 6경기(2득점)도 포함된다.

차범근은 1977년 6월26일 월드컵 예선 홍콩전에 출전함으로써 5년1개월 만에 100경기에 출전하는 대기록을 작성했는데, 이는 역대 최연소(24세1개월) 100경기 출전기록이다. 차범근의 기록은 발굴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7경기 차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1980년대 이전까지 기록을 등한시한 것이 그 하나고, 두 번째는 올림픽 경기의 포함 여부다.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등 국외에서 치러진 A

매치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단순히 경기결과만 남겨놓은 게 많았다. 그러다보니 출전선수나 득점자를 찾는데 애를 먹는다. 축구협회는 실종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들여 동남아 등지로 가 도서관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긴 했다. 하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기록들이 많다.

연령제한(23세 이하)이 정해진 1992바르셀로나올림픽 이전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는 올림픽 예선에 성인대표팀을 출전시켰다. 실질적인 A매치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FIFA는 월드컵 본선이나 지역 예선, 대륙별선수권, 성인대표선수로 구성된 대표팀간 친선전과 함께 올림픽의 경우 1948년 까지의 본선 및 예선 경기만 A매치로 인정하고 있다. FIFA는 올림픽축구에 별 관심이 없던 유럽과 남미대륙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지점에서 FIFA와 축구협회의 기록이 엇갈린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1992년 이전의 올림픽 출전기록까지 모두 정리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축구협회는 배태원 태극전사들의 잃어버린 A매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해왔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배 세대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승화시키는 건 우리 세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chohng2@donga.com

한국, 호주·일본과 4번 포스트...월드컵 본선 '가시밭길'

남미·북중미·유럽·아프리카 중 3팀 만나 유럽 2개팀과 같은 조편 '최악의 시나리오'

2부 강등 광주의 희망가

챌린지 강등, 스폰서 유치 등 난관 있지만 시, 내년엔 10억 오른 70억 예산 지원 검토

러 월드컵 본선 조추첨 시드배정 확정

남미의 페루가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팀이 됐다.

페루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리마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PO) 2차전 뉴질랜드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1차전 원정을 0-0으로 비긴 페루는 합계 스코어 2-0으로 본선에 올랐다. 32번째로 본선에 진출한 페루는 1982스페인월드컵 이후 무려 36년 만에 꿈의 무대에 나선다.

이로써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프리카 5개국(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남미 5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이 본선에서 올랐다. 가장 많은 본선 진출국이 나오는 유럽은 총 14개국(러시아, 독일, 잉글랜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스위스, 크로아티아, 스웨덴, 덴마크)이 본선에 합류했다. 북중미에선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3개국이 월드컵 본선에 나선다.

12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궁(宮)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의 시드배정 또한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기준으로 상위 7개 팀과 개최국 러시아가 1번 포스트에 배정된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FIFA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2,3,4번 포스트의 각 8개 팀도 FIFA랭킹에 따라 결정된다. FIFA랭킹 62위 한국은 세르비아(38



페루, 36년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16일(한국시간) 리마에서 벌어진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0으로 뉴질랜드를 꺾고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형 32번째 팀자를 탄 페루의 크리스티안 라모스(사진 오른쪽)와 알베르토 로드리게스가 환호하고 있다. 리마(페루) | AP뉴시스

위), 나이지리아(41위), 호주(43위), 일본(44위), 모로코(48위), 파나마(49위), 사우디아라비아(63위) 등과 함께 4번 포스트에 배정된다. 우려했던 대로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강호들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FIFA는 월드컵 본선에서 유럽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륙의 국가들이 같은 조에 속하지 않도록 조 추첨을 진행한다. 한국은 남미, 북중미, 유

럽, 아프리카 중 3팀과 격돌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조에 유럽 대륙의 2팀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죽음의 조 시나리오 가운데서도 최악의 경우다. 최영석 기자 gyoung@donga.com

독일원정서 무패...자신감에 찬 U-16 대표팀

통신원 리포트

나이더많은 분데스리가유스팀 상대 2승 2무 김경량 감독 "개인 능력 마음껏 발휘 큰 성과"

"좋은 경험 하고 돌아갑니다."

독일원정 일정을 마친 뒤 16세 이하(U-16)대표팀의 사령탑 김경량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15일(한국시간) U-16 청소년 축구국가대표팀은 분데스리가 2부 팀 포투나 뉘셀도르프 U-17 유소년팀과의 경기(2-2 무)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독일 전지훈련을 끝냈다.

7일 FC쾰른의 U-17 유스팀과의 첫 경기에서 7-0 대승을 거둔 청소년대표팀은 9일 U-17 바이어

레버쿠젠 유스팀을 상대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11일 살케04와의 경기에선 3-0으로 이기는 등 원정기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치 않았다. 쾰른과의 첫 경기부터 어린 선수들의 눈에는 자신감이 살아 있었다. 이국땅에서도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분데스리가의 강호 팀, 그것도 1살 많은 선수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펼쳤다. 그래서 U-16 유소년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김 감독은 이번 원정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번 독일 전지훈련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 힘 있고 스피드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그것도 한 살이든 두 살이든 연령대가 높은 선수들과 부딪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팀 전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특별한 공동체적인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입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낼 수 있게. 또 해외선수들을 상대로 얼마나 본인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자신 있게 하라고 일러줬다."

-해외 원정인데도 유독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

"이미 말했듯 특별한 주문은 없었다. 선수들에게 개성을 살리라고 말했다. '맘껏 펼쳐봐라'라고 일러줬다. 작년에도 해외 전지훈련을 했던 친구들이 리드하며 아직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지 못한 선수들을 잘 이끌어줬다. 그 결과 기죽지 않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나왔다."

-독일 원정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지만, 아쉬

운 점도 있었을 것 같다.

"다 아쉽다. 하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한다. 좀 더 강한 팀과 만나서 선수들이 지는 것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합동안 생각이 달라졌다.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이런 마음가지면 어떤 팀과 겨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이 1년 혹은 2년 후 유럽의 강팀들과 겨뤘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1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한다. 돌아간 뒤의 목표는?

"이번 해외에서의 경험들이 나중에 선수들에게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들 한국으로 가면 소수 팀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험들이 다 몸에 남아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또 이런 프로 클럽들이 계속 진행되어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필진(독일) | 윤영신통신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8~19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38라운드는 2017시즌의 파블레다. 이들간의 혈전을 끝으로 클래식 12팀의 성적표가 정리된다. 긴 여정을 마친 팀들은 이제 2018년으로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올해 달력을 차마 넘길 수 없는 팀이 있다. 광주FC다. 18일 홈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만나는 광주는 그 경기가 끝나면 앞으로 1년간 클래식 무대를 밟을 수 없다. 이미 최하위가 확정된 다음 시즌을 챌린지(2부리그)에서 시작해야 한다. 남기일(43) 감독이 중도 사퇴한 뒤 김학범(57) 감독이 비상체제를 이끌었지만, 결국 기적은 없었다.

문제는 향후 운영이다. 시민구단으로서 재정부담을 느꼈던 광주는 다시 챌린지로 강등되며 난관이 부딪히게 됐다. 올해 광주 구단의 운영예산은 70억원 안팎이다. 광주광역시와 60억원을 편성했고, 광주은행 등 기타 스폰서 비용으로 13억원 가량을 채웠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프로구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100억원이 훌쩍 넘고 200~300억원까지 쓰는 다른 구단에 비하면 고개를 내밀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그나마 지난 3년 동안은 상황이 나았다. 클래식 구단으로서 광고유치가 수월했다. 그러나 앞으로 1년은 이러한 지원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광주의 앞날이 밝지 않은 이유다.

물론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 강등과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 체육진흥과의 관계자는 "올해 집행했던 60억원은 구단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10억원을 증액한 70억원을 현재 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가 승인하면 최종편성 된다"고 설명했다. 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영욱(61) 단장 역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 단장은 "광주가 다른 구단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 시·도민 구단 가운데서도 예산규모가 가장 작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물론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내내도 후원을 약속 받았다. 게다가 광주에 전용구장이 곧 건립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광주는 18일 홈팬들 앞에서 클래식 최종전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챌린지 무대 대비에 들어간다. 2부 리그지만 이미 많은 클래식 강등 팀들이 고전할 만큼 만만치 않은 무대가 챌린지다. 과연 어느 시점에 광주 유니폼을 클래식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고훈준 기자 shuhout@donga.com